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2월 2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4(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기업협력과 진종욱 과장(044-203-4230), 이창원 사무관(4234)

주형환 산업부 장관,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화 집중 지원"

- 중기청, 중견기업 전용 R&D·수출 지원예산 편성 추진
- 전속거래 협력사 실태조사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마련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24일(수),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 중견기업인 ㈜유라코퍼레이션의 R&D센터(판교)를 방문하여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중견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 개요 >

□ 시간/장소 : '16. 2. 24(수) 14:30~16:30 / ㈜유라코퍼레이션 R&D센터

□ 참석자 (21명)
-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담당 국장 등 6명
- ○ (중견기업) 중견련회장, 중견기업 대표 등 15명

□ 이번 간담회는 **전체기업의 0.12%에 불과**하지만 **고용(9.7%)과 수출(17.6%)**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 작년 전체 수출이 감소(△8.0%)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을 3.2% 증가**시키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 **중견기업의 수출확대**와 **신산업 진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중견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 DNA, 안정된 체력,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 **과감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R&D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요청

□ 또한 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힘

(1) **수출확대**를 위해서

○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 관련 중견기업**의 전속성을 풀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수요 발굴부터 R&D, 금융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GP)** 확대

* 지원예산을 당초 26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GP종합상담회도 '15년 8회에서 금년 '12회로 확대

* GP 거점무역관 : ('15) 32개(선진국 중심) → ('16) 40개(중국, 인도 등)

- 전속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출잠재력 파악, 수출애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월말까지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

○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2) **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해서

○ 중소·중견기업용 **신산업 투자 펀드(1,600억원)** 조성 및 **신산업 R&D 및 사업화 자금(연간 3,000억원 규모)** 저리 융자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24 15:45:27

○ 중견기업의 신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및 **신성장 동력 R&D 세액공제** 대상을 신산업(75개) 전 분야로 확대

○ 해외M&A를 통한 신산업 진출지원을 위해 **총 10억불 규모**의 **수출입은행 외화대출**을 한도를 우대하여 저리로 제공

* 소요비용 90% 한도, 금리 0.2%p 인하

□ 참여한 중견기업인들은 **전용 R&D사업 신설, 마곡지구 내 R&D 복합센터 지원,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지원** 등을 건의

○ 이에 대해 주 장관은

- 중견기업에 대한 **R&D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청 내 중견기업 **전용 R&D예산 신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금년 중 착수

- 마곡지구에 설립 예정인 **중견기업 R&D복합 센터**에 대한 **공동 연구기자재, 해외바이어 상담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 지원**

- '17년도 중기청 **수출지원 사업** 내에 **중견기업 전용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이창원 사무관(☎ 044-203-4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견기업 참석자

No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주요 업종)
1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신영)	**회 장**	**강호갑**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	㈜유라코퍼레이션	회 장	엄병윤	전기장비 제조업
3	㈜대창	회 장	조시영	금속 제조업
4	동양물산기업㈜	회 장	김희용	농업·임업용 기계제조업
5	㈜루멘스	대표이사	유태경	반도체소자 제조업
6	송원그룹	회 장	김해련	화학물질 제조업
7	SIMPAC	회 장	최진식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8	아주산업㈜	사 장	윤병은	레미콘 제조업
9	SM그룹	회 장	우오현	합성섬유 제조업
10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 장	김재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1	인지컨트롤스㈜	회 장	정구용	자동차엔진용 부품제조업
12	KG그룹	회 장	곽재선	시스템 SW 개발 및 공급업
13	㈜한글과컴퓨터	부사장	방병일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
14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영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1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24 15:45:27

붙임 2 모두발언

1. 인사말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견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3년간 중견기업연합회를 이끌면서
수고해주신 강호갑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회장에 연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14.7월) 및
기본계획 수립(15.6월) 등
중견기업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과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활력 회복에
중견기업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2. 중견기업이 나아갈 방향

중견기업은 3,800여개로
116만명을 고용하고 연 930억불을 수출하는 등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전체 수출이 8% 감소하였지만
중견기업 수출은 오히려 3.2% 증가하여
수출전선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국내 대기업의 협력업체,
중[illegible] 덩치 큰 경쟁상대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illegible]만 지몬은
히든챔피언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글로벌화와 R&D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수요가 제한된 내수시장에 머물면서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히든챔피언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견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성장 DNA, 안정된 체력, 빠른 의사결정 능력을 무기로
과감하게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R&D를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신산업 진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24 15:45:27

①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

독일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에 해당하는
1300개 이상의 히든챔피언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중견기업의 50% 이상은
수출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중, 한베트남 등 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확대되고
최근 이란, 쿠바 등 닫혔던 시장이 열리고 있어
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의 1차, 2차 벤더기업 중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히든챔피언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기업과의 전속성이 높은 중견기업들이
과감하게 해외시장으로 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② 끊임없는 혁신활동

한국콜마, 한미약품, 녹십자 등 중견기업들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매출 1조원을 넘겨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지속적 R&D투자를 통한 혁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견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시장에서 성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견기업이 보다 혁신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신산업 투자

오늘 방문한 유라코퍼레이션을 보면
R&D투자 비중이 매출액의 6%에 달하고
연구인력 비중도 전체 직원의 32%에 이르는 등
혁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눈여겨 본 부분은
전기차 관련 R&D 비중이 30%를 넘는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재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ICT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고급소비재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진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방안

정부는 중견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수출 전문기업으로 발전하고,
수출 부진 회복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① 수출지원

우선, 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중국, 미국 등 주력시장은 물론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24 15:45:27

이란, 인도, 베트남 등 전략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존 수출 주력품목과 더불어
유망소비재, 서비스, 기술, 문화, 농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규모와 수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여,
금년 중 내수기업 5천개를 수출기업화 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관련 중견기업은
전속성을 풀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분야의 글로벌 오토파츠 플라자 행사 개최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부품·소재기업을 연계하여
R&D,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GP)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재 중견기업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확대 등
전자상거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상사와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 혁신역량 제고

둘째, R&D투자 등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중견기업 10.1%, 중소기업 35.4% (산업부, '14년)

중기청에 중견기업 전용 R&D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50개 확대 지정하여
R&D, 금융, 마케팅,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900억원 규모인 사업예산은 내년에는 1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③ 신산업 투자촉진

셋째,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입지·환경 규제 등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하여
산업부에 설치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7조원을 신성장 분야 R&D에 투입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1,600억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신산업 R&D 및 사업화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6-02-24 15:45:27

중견기업의 신산업 설비투자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신산업에 대한 R&D투자는 신성장동력 R&D투자로 인정하여
일반 R&D세액공제율(2~8%) 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견기업이 해외M&A를 통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 10억불 규모의 외화대출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저리(금리 0.2%p↓)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4. 맺음말씀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짐 콜린스*는
실패한 결정 10개 중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비록 대내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합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부가 앞장서서
중견기업인 여러분과 전면적으로 소통하고,
성장의 걸림돌이 있다면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